

# 05

##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상징성 검토

—공존·공유·공생을 위한 시론

### ■ 손승철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 주요 논저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2006)  
『조선통신사』(2006)  
『한일관계사료집성』(전 32권)(2004)

### Contents

---

- 1 오늘, 조선통신사에 대해 우리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 2 통신사의 시작, 공존시대의 개막
- 3 통신사의 부활, 돌아온 평화의 시대
- 4 맺음말

이 연구는 조선통신사의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성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조선 통신사는, 조선 전기에는 동아시아 해역의 약탈자였던 왜구를 평화의 통교자로 전환시켰으며 200년간을 교린(交隣)의 시대로 이끌어갔고, 조선 후기에는 7년간의 임진왜란을 마감하고, 조선 후기 260년간을 평화의 시대로 부활시킨 외교사절이었다.

1392년 건국한 조선은 명을 중심으로 한 책봉체제를 전제로 일본과 교린관계를 맺은 후, 조선통신사의 왕래를 통해 각종의 제도를 정비해가며 한일 간에 공존의 시대를 열었다. 통신사는 믿음을 통(通)하며 실천해가는 사절의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 남부에 있는 3개의 항구도시, 삼포(三浦)는 무역과 외교가 이루어지는 '공존의 장(場)'이었다. 1592년,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정권이 교린관계의 믿음을 배신한 불행한 역사도 있었지만, 통신사를 통해 다시 우호관계를 부활시켰다. 또한 한일 두 나라는 통신사의 왕래를 통하여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조선의 문인, 화가, 의사 등이 대거 일본을 방문하여 학문을 토론하고, 시문을 주고받았으며, 조선의 화풍을 전하고, 의학을 전수했다는 내용들이 전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신사를 '조선시대의 한류'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한일 간에는 독도나 역사교과서 문제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은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아직도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채,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조선시대 500년간 '조선통신사'가 연출한 한일관계는 나름대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공존의 역사'를 만든 통신사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에 공유'할 때, '미래에 공생'하는 역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조선통신사, 왜구, 삼포, 임진왜란, 문화교류, 공존, 공유, 공생, 한류

## 1. 오늘, 조선통신사에게 우리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이후,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한일관계는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다. 그 시작은 2005년 일본 중학교 후소사(扶桑社)판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와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 때문이다. 2006년에는 동해의 해저 지명과 해양 조사 문제로 양국이 충돌 위기에 직면했고, 양국 정상 간의 관계도 나빠져 한때는 서로 외면하기도 했다. 2008년 양국 모두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가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이 뿌리 깊은 갈등의 진원지는 어디에 있을까. 또 그 갈등의 해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한일 양국이 서로 우호교린을 해야 하는 것은 역사적 명제다. 과거 2000년간의 역사적 경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두 나라의 갈등이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 면에서 조선시대 500여 년간, 양국 사이에서 조선통신사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양국은 외교적인 갈등을 해소했고, 물자와 문화를 교류했으며, 그 결과 공존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

물론 중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이라는 불행한 역사도 있었지만, 통신사를 통해 다시 우호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500년간의 한일관계를 ‘조선통신사’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시대 사람들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갔으며,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되새겨봄으로써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상징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통신사의 시작, 공존시대의 개막

『고려사(高麗史)』에는 1350년 경인왜구(庚寅倭寇) 이래 한반도를 비롯하여 동아시아 해역을 약탈한 왜구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350년부터 40년간 대략 약 500회에 걸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침탈지역도 남해안을 포함하여 서해안과 동해안의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 위치한 조창(漕倉)의 곡식을 약탈해갔다. 소와 말 등 가축은 물론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납치해 갔다.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살해하고 관청을 습격하며 방화했다. 왜구가 가장 극심했던 1380년에는 “자녀를 베어 죽인 것이 산처럼 쌓여서 왜구가 지나간 곳마다 피바다를 이루었다. 2, 3세 되는 계집아이를 사로잡아 머리를 쥐고 배를 갈라 깨끗이 씻어서 쌀·술과 함께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삼도(三道) 연해지방이 쓸쓸하게 텅 비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sup>1)</sup>

고려에서는 왜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 사절을 파견하기 시작

---

1) 『太祖實錄』 총서(『한일관계사료집성』 3), p.7.

했다. 왜구금압을 위해 사절을 파견한 것은 1366년(공민왕 15) 9월 김용(金龍)이 최초였고, 이어 6차례나 파견하였다. 이들 중 교토에 가서 장군을 만난 사절은 1375년 2월의 판전객사(判典客寺) 나홍유(羅興儒)뿐이었고, 나홍유와 정몽주(鄭夢周)를 제외하고는 명칭도 명확하지 않다. 나홍유는 통신사(通信使), 정몽주는 보빙사(報聘使)라는 명칭을 기록하고 있을 뿐, 다른 사절의 명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료로는 1375년 2월 판전객사 나홍유가 최초의 통신사가 된다.<sup>2)</sup>

그러나 여기서 통신이란 소식을 전한다는 사전적인 의미<sup>3)</sup> 그대로였다. 따라서 나홍유 때의 통신사는 고려와 일본이라는 인접국가 간에 상호 친선을 전하기 위한 연락 사절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일본은 남북조시대의 혼란기였고, 막부장군의 통치권과 외교권도 확립되어 있지 않던 시기였다. 결국 고려는 왜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조선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왜구였다.

1392년 11월, 조선에서는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에 승려 각추(覺鑊)를 보내 고려 말부터 극성을 부리던 왜구 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는 승려 수윤(壽允)을 조선에 보내 ‘해

2) “신우(辛禰) 초기에 판전객사사로 되어 왕에게 상서해 일본에 가서 강화를 맺을 것을 자청하므로 마침내 그를 통신사(通信使)로 보냈다.(나홍유, 『고려사』 열전) 봄 2월 [……] 판전객사사 나홍유가 글을 올려 일본과 화친하기를 청하므로 홍유를 통신사로 삼아서 보냈다”(『고려사절요』, 제30권, 신우[1375] 1년 을묘 봄 2월).

3) 『大辭典』(臺灣, 三民書局, 1985)의 통신(通信)은 互通音信, 傳達消息. 『大漢和辭典』(東京, 大修館書店[모로바시사전, 1985)에는 우편, 전신, 전화 등의 모든 수단으로 상호의지를 통하는 일, 통지(通知)나 통보(通報). 『漢韓大字典』(민중서관, 1965)에는 소식을 전함, 통신기관을 이용하여 의사를 서로 통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

적선을 금하고 조선피로인(朝鮮被虜人)을 송환해서 인교(隣交)를 다질 것을 염원한다는 서한을 전달했다. 그런데 당시 파견된 사절은 일본장군의 명의를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이 1403년 4월, 명의 성조로부터 책봉을 받고,<sup>4)</sup> 일본도 1403년 11월 책봉을 받자, 양국의 외교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그 단적인 예가 양국이 모두 책봉을 받은 직후, 양국에서는 막부장군의 호칭을 ‘일본국왕(日本國王)’이라고 했으며, 그 사신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라고 칭했다.<sup>5)</sup>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일본국왕의 호칭이 처음 보이는 것은 1404년 7월이며,<sup>6)</sup> 일본국왕사의 명칭이 처음 보인 것은 그해 10월에 위의 사신이 한양에서 태종을 알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할 때의 기록에서다.<sup>7)</sup>

‘일본국왕’의 호칭은 장군에 대한 조선 측의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조선에서는 이때부터 막부장군을 천황의 신하(將臣)로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의 주체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일본국왕(장군)을 조선국왕과 함께 동아시아 외교질서 안에 편입시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조선은 일본을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우호상대의 인국(隣國)으로 인식했던 것이고, 외교체제상 두 나라는 비로소 국가 대 국가 간의 ‘대등한 교린관계(交隣關係)’를 성립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교린관계의 수립은 조일양국관계의 안정화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외교질

4) 『太宗實錄』 권5(3년 4월 갑인).

5) 이후 조선에서는 막부장군의 사절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 또는 일본국사(日本國使)라고 칭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일본국원모(日本國源某)로 자칭(自稱)하고 있다(高橋公明, “外交称号 日本國源某”,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113·史學38, 1992. 참조).

6) “日本遣使來聘 且獻土物 日本國王源道義也”(『太宗實錄』 권8, 태종 4년 7월 기사).

7) 『太宗實錄』 권9(태종 4년 10월 임진), “日本國王使周棠等 詣闕告還 上御無逸殿見之 命言等餽之”.

서의 안정 및 정착이라는 차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양국이 모두 책봉체제(冊封體制)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교린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의 사정은 막부장군에 의해 일본 국내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외교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막부장군은 많은 통교자 중 하나일 뿐 총괄자는 아니었다. 또한 조선에게는 왜구 문제 및 통교자 급증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따라서 조·일 간의 교린체제 완성과 공존시대의 개막은 이러한 다원적인 구조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달려 있었다.<sup>8)</sup>

조선에서 일본 측의 다원적인 구조를 정비하여 교린체제를 완성해 가는 방법은 다양한 통제규정에 의해 이들을 또 하나의 구조적인 틀, 즉 기미질서에 편입시켜 가는 것이었다. 조선이 실시한 통제규정의 각종 제도는 포소(浦所)의 개방 및 제한, 수직왜인제도(受職倭人制度), 서계(書契)·도서(圖書)·통신부(通信符)·문인(文引)·고초도조어금약(孤草島釣魚禁約)·세견선제도(歲遣船制度)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가운데 포소를 개방하여 삼포제도를 확립한 것은 공존의 공간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포소의 개방과 통제는 1407년경부터 시작된다. 도항왜인과 무역이 가능해지면서, 조선에 도항해 온 왜인들은 처음에는 경상도 지방의 연해안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점차 지역이 확대되어 전라도지역은 물론 다

8) 조·일관계의 다원적이며 계층적인 구조와 그것을 교린체제(통교체제)로 정비해 가는 과정에 관해서는 孫承喆, “제2장 조선 전기 중화적 교린체제”,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서울: 경인문화사, 2006) 참조.

른 해안지역에까지 무질서하게 내왕하게 되자, 조선에서는 1407년 경상 좌도와 우도의 도만호(都萬戶)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포와 내이포(乃而浦) 2곳을 왜인들의 도박처로 한정시켜, 출입과 교역품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급작스런 도박처의 제약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도항왜인이 급증하자 1418년에는 염포(鹽浦)와 가배량(加背梁) 2곳을 늘려 4곳으로 했다가, 1419년 대마도정벌에 의해 일시 폐쇄했다. 그 후 대마도의 간청에 의해, 1423년 부산포(富山浦)와 내이포 2곳을 다시 허락했고, 1426년 염포를 추가하여, 삼포제도를 확립했다.

그리고 이들 포소에는 왜관을 설치하여, 제포 30호·부산포 20호·염포 10호의 항거왜인(恒居倭人)을 거주케 하면서 도항왜인에 대한 접대와 교역을 허가했다. 왜관의 설치 목적은 왜인들의 간계와 방중한 행동의 금지, 국가기밀을 위한 왜인 접촉의 금지, 국방상의 이유, 접대처와 교역처의 역할이었지만, 이 공간을 통해 약탈과 납치의 행위가 교역으로 바뀌면서, 공존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sup>9)</sup>

그러나 포소와 왜관의 설치 및 규제만으로는 도항왜인에 대한 통제가 전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자 조선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무질서하게 도항하는 왜인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도항절차와 증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실시와 정착은 1396년 수직왜인의 관직을 제수하는 것부터 세건선제도가 정착되는 1443년 통신사 변호문(通信使 卞孝文) 때 맺은 계해약조(癸亥約條)에 의해 일단락 지어질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

9) 손승철, 앞의 책, pp.66~69.



삼포제도와 계해약조의 성립에 의해 통교(외교와 무역)관계가 안정화되면서 조선국왕과 일본장군은 중국의 책봉을 전제로 국왕 간의 적례관계를 지향하는 '대등관계(對等關係)'의 교린과, 그 외의 모든 통교지는 대마도주를 매개로 하여 조선 중심의 기미질서에 편입되어 조빙응접방식을 취하는 '기미관계(羈縻關係)'의 교린이라고 하는 이중구조의 독특한 교린체제를 완성했다.

이와 같이 조·일 간에는 각종 통교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사절을 파견했다. 그런데 일본장군의 사절은 '일본국왕사'로 처음부터 일원화되었지만, 조선의 경우는 달랐다. 즉 1404년 10월, 1406년 12월에는 보빙사(報聘使), 1410년 2월에는 회례사(回禮使), 1413년 2월에는 통신관(通信官), 1420년 윤정월, 1423년 12월, 1424년 12월에는 회례사였고, 통신사의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428년 12월 박서생(朴瑞生) 일행부터였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에서는 어떠한 연유로 사절의 명칭을 통신사라고 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변국에 대해 이미 삼국시대부터 사절을 파견했는데, 그 명칭은 일반적으로 사절의 목적이나 파견국(지역)에 따라 다르게 붙여졌다. 예를 들면 견당사(遣唐使), 견수사(遣隨使), 춘신사(春信使), 동지사(冬至使), 성절사(聖節使), 조천사(朝天使), 연행사(燕行使) 등의 사절단 명칭이 그에 해당한다. 그런데 통신사라는 명칭은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고, 오직 조선시대에 일본에 파견했던 사절에만 붙여진 명칭이다.

최초의 통신사였던 박서생을 파견할 때의 경우를 보자.

일본통신사 대사성 박서생·부사 대호군 이예(李藝)·서장관 전 부교리 김극유(金克柔)가 길을 떠나는데, 新主의 사위를 하례하고 前主에게 致祭하기 위함이었다. 그 서계에 이르기를, “이제 구주에서 온 사객으로 인하여 비로소 새로 큰 명을 받아 位號를 바로 함을 알았는데, 기쁘고 경사로운 마음이길 수 없어, 이에 사신 성균 대사성 박서생과 대호군 이예를 보내어 귀국에 가서 하례를 드리게 하는 바이며, 변변하지 못한 토산물은 조그마한 성의를 표한 것뿐이니 영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귀국과 우리나라는 대대로 옛 호의를 닦아 일찍이 조금도 변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선대의 뜻을 잘 이어받아 더욱 신의를 돈독히 하여, 끝내 그 명예를 영구히 한다면 이 어찌 양국의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sup>10)</sup>

라고 하여 통신사 파견의 목적이 새 장군의 즉위를 축하하고, 장군에게 치제하는 데 있으며, 영구히 신의를 돈독히 함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통신사 박서생의 사목에는 “어소(御所)와 수호하는 것이 비록 교린하는 도리이며, 해적을 금방하는 계책입니다”라고 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린을 위해 사절을 보낸다고 했다. 결국 일본과 적극적인 교린을 위해 통신사를 보냈던 것이다.

그러면 조선왕조의 교린정책은 어떠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조선왕조실록』의 교린 용례를 보자.

[표 5-1]의 교린의 용례를 볼 때, 교린은 항상 信·道·義·禮라는 유교적 실천규범을 향시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규범을 통하여 ‘교린지신(交隣之信)’, ‘교린지도(交隣之道)’, ‘교린지의(交隣之義)’, ‘교린지에(交隣

10) 『世宗實錄』 권42(세종 10년 12월 갑신).

[표 5-1] 『조선왕조실록』의 교린 용례

순번	일자	내용	출처
1	1413. 8	交隣하기를 信義로 하시며 … (交隣以信)	태종 13년 8월 임자
2	1418. 1	交隣의 道에 후하고 박한 것이 고르지 않다(交隣之道)	태종 18년 1월 계유
3	1422.12	交隣의 義가 지극하다(交隣之義至矣)	세종 4년 12월 기해
4	1429.12	우리가 교린의 예가 있어 … (在我交隣之禮)	세종 12년 12월 신사

之禮)’ 등의 성어가 등장한다. 즉 조선의 교린외교는 신의·도리·의리·예의라는 유교적 가치기준을 가지고 사절 왕래를 희망했다.<sup>11)</sup> 따라서 통신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교린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외교사절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신의를 돈독히 하며 영구히 믿음을 다짐하기 위한 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붙여진 명칭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1428년 통신사는 신의를 통(通)한다는 교린의 이념을 실행하는 최초의 사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의 정착은 [표 5-2]의 조선 전기 조선사절 일람과 같이 1439년 7월의 통신사 고득중 때부터였고, 그 시기는 실제로 조·일 간에 교린체제가 완성되어 가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1443년 대마도주와의 계해약조 체결로 교린체제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데, 통신사의 호칭이 이 시기에 정착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신사란 조선왕조의 대일 기본 정책인 교린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인 목적을 가진 신의의 사절’로 그 개념을 정의해야 할 것이다.

1428년 통신사의 시작과 관련하여, 1426년 삼포제도의 확립에 주목

11) 閔德基, “조선시대 交隣의 理念과 국제사회의 交隣”, 『민족문화』 21집(민족문화추진회, 1998) 참조.

[표 5-2] 조선 전기 조선사절 일람표

회수	출발	使行名	正使	派遣對象	使行目的	出處
1	1392.윤12		覺鑑(僧)		倭寇禁止要請	善隣國 寶記, 上
2	1399. 5	通信官	朴惇之	征夷大將軍	倭寇禁止要請	實錄, 定宗1/5乙酉
3	1399. 8	報聘使	崔云嗣	日本大將軍	報聘, 風浪中止	實錄, 定宗1/8癸亥
4	1402. 7		朝官	日本大將軍	和好, 禁敵, 被虜人刷還	實錄, 太宗2/7壬辰
5	1404.10	報聘使	呂義孫	日本國王	報聘	實錄, 太宗4/7己巳
6	1406. 2	報聘使	尹銘	日本國王	報聘	實錄, 太宗5/12戊辰
7	1410. 2	回禮使	梁需	日本國王	報聘, 義滿弔喪贈儀	實錄, 太宗10/2辛丑
8	1413.12	通信官	朴賁	日本國王	使行道中發病中止	實錄, 太宗14/2乙巳
9	1420.윤01	回禮使	宋希環	日本國王	國王使回禮, 大藏經賜給	老松堂日本行錄
10	1422.12	回禮使	朴熙中	日本國王	國王使回禮, 大藏經下賜	實錄, 世宗4/12癸卯
11	1424. 2	回禮使	朴安臣	日本國王	國王使回禮, 金字經賜給	實錄, 世宗5/12辛亥
12	1428.12	通信使	朴瑞生	日本國王	國王嗣位, 致祭	實錄, 世宗10/12甲申
13	1432. 7	回禮使	李藝	日本國王	國王使回禮, 大藏經下賜	實錄, 世宗14/7壬午
14	1439. 7	通信使	高得宗	日本國王	交聘, 修好	實錄, 世宗21/7丁巳
15	1443. 2	通信使	卞孝文	日本國王	日本國王嗣位, 致祭	實錄, 世宗25/2丁未
16	1459. 8	通信使	宋處儉	日本國王	國王使報聘, 使行中遭難	實錄, 世祖5/8壬申
17	1475. 7	通信使	裴孟厚	日本國王	修好, 日本內亂中止	實錄, 成宗6/8丁酉
18	1479. 4	通信使	李亨元	日本國王	修好, 對馬島中止	實錄, 成宗10/9乙丑
19	1590. 3	通信使	黃允吉	豐臣秀吉	倭情探聞	金誠一, 海槎錄
20	1596. 8	通信使	黃愼	豐臣秀吉	講和交涉	實錄, 宣祖29/8壬子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국왕사와 조선통신사는 1350년 경인왜구로부터 시작된 약탈과 갈등의 시대를 공존의 시대로 전환시켜 가는 기능을 했으며, 특히 계해약조를 이끌어낸 1443년 통신사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조선에서는 건국 후부터 1596년까지 총20회에 걸쳐 사절을 파견했고, 일본에서는 1592년 임진왜란 때까지 70회에 걸쳐 '일본국왕사'를 파견했다.

조선국왕과 막부장군이 대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절 파견 횟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선통신사의 파견목

적은 양국 간의 우호교린에 있었지만, 일본국왕사의 파견목적은 주로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인 데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국왕사는 통교나 하사 품에 대한 경제적인 욕구와 대장경청구라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일본국왕사로 위장한 가짜 사절, 즉 위사(僞使)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현 단계에서 70회의 일본국왕사 중 어느 사절이 진짜고, 어느 사절이 가짜인지 진위를 명확히 가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절반 이상은 위사일 것이다. 일본국왕사의 진위 구분도 향후 한일관계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 3. 통신사의 부활, 돌아온 평화의 시대

#### (1) 통신사의 부활

1592년, 일본의 조선침략에 의해 조선통신사에 의한 조선 전기의 교린관계가 깨진다. 이것은 도요토미 정권이 무로마치 막부의 외교노선을 계승하지 않고 통신사가 그토록 강조해 온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590년 통신사를 조공사(朝貢使)로 취급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동래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과거 일본국왕사의 상경로를 통해 20일 만인 5월 2일, 한양에 입성했고, 6월 16일에는 평양을 점령했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프로이스의 일기』에는 그의 침략 의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일본군의 승리도 개전 초기 2달간이었고, 이후 7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의병과 민중의 저항, 이순신 장군의 활약 때문이었다. 일본군은 한반도 남부에 29개나 되는 왜성을 쌓고 장기전에 들어갔지만, 히데요시는 죽

고, 조선의 승리로 끝났다. 그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는 전쟁 후 히데요시가 쌓은 오사카성 정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전쟁 중에 당한 여인들의 수난을 그린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와 양국의 각종 기록들은 지금도 그 참혹함에 치를 떨게 한다. 또 조선인의 코와 귀로 만든 이총(耳塚) 등 깊은 전쟁의 상처는 이후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인식하게 되었고, 조선 전기와 같은 교린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과 일본 간의 강화교섭은 의외로 빨리 진척되어 종전 후 불과 몇년 만인 1604년 6월에 사명대사(四溟大師)와 손문욱(孫文彧)을 탐적사(探賊使)로 파견하였다. 탐적사 일행은 대마도를 거쳐 교토에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를 만나 일본의 국정을 살피고 이듬해 4월 귀국했다. 그 후 조선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강화조건(도쿠가와 장군의 國書와 犯陵賊 送還)이 이행된 후, 1607년 1월, 여우길(呂祐吉) 일행이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로 장군에게 파견되어, 국서를 교환함으로써 양국의 국교가 정식으로 재개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609년 기유약조(己酉約條)를 맺고, 1611년부터는 세견선(歲遣船)이 정식으로 도항해 옴으로써 외교 및 교역관계가 모두 재개되어 명실공히 교린체제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조선에서 막부장군에게 파견된 사절(1617, 1624)의 명칭은 모두 회답겸쇄환사였고, 통신사의 명칭이 다시 붙여진 것은 1636년부터였다. 그러면 조선 후기 통신사의 명칭은 어떠한 개념과 의미를 갖는 것일까.

먼저 1604년 사명대사 일행의 탐적사(探賊使) 명칭을 보자. 탐적사란

글자 그대로 적(賊)을 정탐한다는 의미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임란 직후 강화에 대한 조선 측의 입장은 일본에 대한 적대감과 피해의 식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한때는 강화보다는 오히려 복수심을 갖고 대마도 정벌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전쟁상태를 종결해 민심을 안정시키고, 일본에 끌려간 피로인을 쇄환시켜야 한다는 국내의 요구와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재침설이나 북방의 후금세력의 팽창에 대한 경계의식과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가능한 한 일본과의 관계를 서둘러 안정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임란 때 피랍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와 일본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일본이 재침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그러던 중 1603년 10월 대마도에 억류되어 있던 김광이 귀국했다.

김광의 송환은 대마도의 요청에 의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직접 허락한 것으로, 그의 집권과 강화 의욕에 대한 내용을 직접 조선에 전달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귀국 후 김광은 즉시 상소를 올려 일본의 동향을 전하고 있는데, 그는 조선이 화호를 불허하면 일본이 재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김광의 상소로 국내의 동요는 적지 않았다. 당시 비변사에서는 김광의 상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임란 후 지금까지 4년간 대마도의 화호 요청에 대해 명을 핑계대어 이를 회피하여 왔는데 그 계획이 일본에 간파되었다면 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하여 일본의 재침설과 화호 요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탐적사의 파견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sup>12)</sup>

12) 『宣祖實錄』 권172(선조 37년 2월 경술).

드디어 1604년 3월, 조정에서는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사명대사의 대마도 파견을 결정하고, 6월에 일본 정탐을 목적으로 탐적사 사명대사 일행을 파견했다. 여기서 탐적사의 적(賊)은 적국(敵國)을 의미하는 적(敵)이 아니라 도적놈을 의미하는 적(賊), 즉 왜적(倭賊)의 적(賊)이었다. 이는 당시 조선의 대일감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호칭이다. 물론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이 호칭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탐적사 일행은 조선과의 강화가 막부장군의 의지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귀국한 후, 조선에서는 도쿠가와 막부와 강화의 의지를 굳혔다. 그리고는 도쿠가와 막부에 대하여 일본국왕호를 쓴 장군 국서(將軍國書)와 범릉적 박송(犯陵賊縛送)<sup>13</sup>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여, 막부로 하여금 이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교린체제를 재편성하려고 했다.

즉 조선 전기 책봉체제의 편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쿠가와 장군으로 하여금 일본국왕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제관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도쿠가와 장군 스스로가 일본국왕을 칭해야만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최고 통치자임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되, 일본국왕호에는 명의 책봉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장군의 국서에 일본국왕호가 사용된 후에야 조선의 회답서에서도 일본국왕을 칭함으로써 적례(敵禮)의 교린관계가 성립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이다.

또한 조선 측에서 범릉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범릉의 행위를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를 범한 것에 대한 응징을 의미한다

---

13) 범릉적(犯陵賊)이란 임진왜란 당시 선릉(성종 정현왕비의 묘)과 정릉(중종의 묘)을 도굴한 범인을 말한다.



는 점에서 일본군의 침략에 의해 일그러진 국가의 체면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나아가 조·일 간의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외교의 차원에서 양국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임란 후 강화교섭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회복 과정에서의 탐적사 사명대사 일행의 역할과 기능은 외교사적인 의미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조선 측의 요구는 대마도에 의해 국서의 개작 내지는 위작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조선 측에서는 대마도로부터 보내진 장군의 국서와 범릉적이 위서(僞書)와 위자(僞者)임을 알았지만, 조선의 요구가 일단은 해결된 이상 더 이상의 추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강화사를 파견하여 임란 후 적대관계를 교린관계로 재편해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강화사의 명칭은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였다. 따라서 이 회답겸쇄환사에 의해서 양국 간의 강화는 성립되었지만, 적어도 이 단계에서 조선이 일본을 교린 상대국으로 보았던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은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에 갈 사신의 명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비변사에서는,

이번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조치이기는 하지만 적의 정세를 상세히 알지 못하는 데 문득 통신사라 호칭하는 것은 실로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諭’자를 이웃 나라에 쓰기 어려울 듯하다는 것은 聖慮가 지극히 마땅합니다마는, 사신의 명칭은 문서 가운데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혐의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그가 먼저 글을 보내어 오고 우리는 회답하는 것이

므로 回諭使라 칭하는 것이 체모에 맞을 듯하나 該官이 다시 더 상의하여 결정해서 미진한 뜻이 없게 하시라고 한 데 대해 윤택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하니, 전교하기를, “回諭使라 칭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차라리 回答使라 칭하는 것이 어떠한가?<sup>14)</sup>

라고 하여 통신사라 호칭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회답사로 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시 피로인의 쇠환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비변사에 서는,

삼가 전후의 비망기를 보건대, 이번 사신의 사행에 우리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모두 쇠환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늘같이 부모 같으신 마음이니 듣고 보는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구구히 이 일을 거행한 것도 생명들을 위해 왜적에게 굽힌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쇠환을 중하게 여겨 사신의 호칭을 刷還使로 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단히 먼저 사신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고 저들이 서약을 보내온 것을 인해서 회답하는 것이 사체에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중국 조정에 아뢰는 가운데에도 ‘家康이 하는 것이 이미 참인지 거짓인지 헤아리지 못하겠고 결박 지위 보내온 왜적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저들이 이미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해왔으니 신으로선 회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회답이란 두 글자를 완전히 빼버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 回答兼刷還使라고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sup>15)</sup>

14) 『宣祖實錄』 권203(선조 39년 9월 계유).

15) 『宣祖實錄』 권207(선조 40년 1월 기사).

라고 하여 최종적으로는 ‘회답겸쇄환사’로 결정하였다. 즉 회답사는 전례가 없지만 명을 의식하여 붙여졌고, 쇄환사는 우리 백성을 쇄환시킨다는 의미다.<sup>16)</sup> 그리고 이러한 명칭은 1617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회답겸쇄환사라고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回答使는 병오년의 전례에 의거해서 兼刷還使로 칭호를 바꾸는 것으로 付票를 고쳐서 속히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전교하였다.<sup>17)</sup>

그러나 1624년의 경우는 단지 회답사라고만 칭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25년이나 지나 아마 쇄환의 의미가 그만큼 약해졌을 것이다.

…… 鄭筮을 日本回答使로, 姜弘重을 부사로, 金南重을 종사관으로 삼았다.<sup>18)</sup>

그러나 이 회답사도 100명의 피로인을 쇄환시켰다.

한편 이 시기에 만주에서 일기 시작한 후금의 성장은 이후 동아시아

16) 『宣祖實錄』 권207(선조 40년 1월 무진). “전부터 일본을 왕래하는 사신은 통신사라 칭하여 왔고 회답사란 호칭은 없었다. 이번에도 그 명칭을 생각해보다 적당한 명칭이 없어서 부득이 회답사라 칭하였다. 만일 쇄환사로 부르기로 한다면 회답(回答) 두 글자는 지워버려라. 서계 가운데에는 먼저 그들의 정성스런 뜻에 대해 답하고 인해서 사리를 들어 말하여 붙잡아간 우리 백성의 쇄환을 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 백성은 바로 천자의 적자(赤子)이니 고국으로 쇄환시켜 자기 그들의 생업에 편안히 종사케 하는 것이 진실로 교린의 도리다’라는 내용으로 만든다면 사리에도 편할 것이다”라고 하여, 쇄환은 교린의 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7) 『光海君日記』 권122(광해군 9년 6월 기묘).

18) 『仁祖實錄』 권5(인조 2년 3월 기묘).

국제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연이은 명과 조선에의 침입은 명의 책봉을 공통분모로 한 중화적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예고였다. 그러나 기존의 사대교린정책에 의해 주변국과의 상호공존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조선은 1627년 후금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종래의 대명관계를 고수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후금의 세력 팽창은 조선에게는 더욱 군사적인 불균형을 초래했고, 1632년부터는 후금과의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꿀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를 기존의 동아시아 외교질서를 후금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행위로 받아들여 강하게 거부했다. 그 결과 1636년에 병자호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힘의 강요에 의한 사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에 대해 사대와 책봉을 거부할 수 없게 된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그 관계를 유지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국 문화에 비중을 두면서 명의 멸망 후 조선을 중화문명의 계승자라는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에 의해 자존의식을 강화해갔고, 그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한때 북벌론이 나타나기도 했다.

조선에서는 이와 같이 대중국관계에 기본적인 변화가 초래하자, 대일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대일 교린체제도 개편해 갔다. 그리하여 종래 명의 책봉을 전제로 한 ‘중화적 교린체제’의 형식을 포기하는 대신, 청을 견제하고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탈중화(脫中華)의 독립적인 교린체제를 수립하였다. 이 개편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역시 대마도에서 발생한 국서개작 폭로사건(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이었고, 조선에서는 교섭 끝에 새롭게 통신사를 파견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교린체제를 새롭게 재정비해 갔다.<sup>19)</sup>

19) 필자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교린체제를 조선 전기의 교린체제와 구별하여 ‘탈중화의 교린체제’

1636년 통신사의 파견 이유가 ‘국서개작 폭로사건’과 관련된 일본 측 내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나카무라 에이코(中村榮孝)에 의해 지적되었다.<sup>20)</sup> 이에 대해 미야케 히데토시(三宅英利)는 1636년 2월 대마도주 소 요시나리(宗義成)로부터 예조참의에게 보낸 신사파견 요청서한<sup>21)</sup>과 인조 앞으로 보낸 회답서한<sup>22)</sup>을 근거로 ‘대조선외교체제의 쇄신을 목적으로 과거의 교류를 시정하고, 새로운 교류를 원하는 막부의 결의를 표현하고, 통신사의 초빙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였다’고 했다.<sup>23)</sup>

따라서 조선의 입장에서 북방과의 대외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우호관계 유지는 국가안위에 절대적인 선행조건이었다. 그러므로 통신사 파견의 문제나 서식 개정에 대한 수락도 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조선의 대일정책은 전적으로 청과의 위기 감 속에서 모색되었을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최명길(崔鳴吉)의 주장처럼 조선의 입장에서는 청과 명,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어떻게 보국안민(輔國安民)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1636년 통신사는 격변하는 동아시아 국제환경 속에서 조·일

라고 정의하고 그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孫承詒, 『朝鮮後期 對日政策의 性格研究』[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20)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下(吉川弘文館), p. 496.

21) “우리 大君의 受禪之日에 사신의 하례를 받았고, 먼저 대군이 돌아가신 후에 泰平을 더한 것이 몇 해 되었습니다. 이제 귀국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데, 귀국의 신사가 바다를 건너와 화친을 닦자고 한즉, 千里의 명을 통하여 더욱 만년의 티전을 든든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가 전에 섭섭했던 점을 이해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通航一覽』 제1, 권31, 朝鮮國部7, 宗氏通信使伺并掛合, 從元和度至明曆度).

22) “義成·調興이 서로 송사를 하여 서와 인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귀국에서도 이 사실을 일찍이 들었을 것이니, 이제 지나간 일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古事類苑』 外交部 9, 朝鮮 2).

23) 三宅英利 著, 孫承詒 譯, 『근세 한일관계사연구』(서울: 이론과 실천, 1991), pp. 180-181.

양국 서로가 청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체제를 수립한 것의 국제적인 표현이었고, 나아가 명의 책봉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외교질서를 배제한 새로운 교린체제, 즉 새로운 ‘탈중화의 교린체제’의 확립을 위한 사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린체제의 탈중화적 성격은 일본장군의 국서에 나타나는 대군호나 천황의 연호, 또 조선의 경우는 1644년 명이 완전히 멸망한 후, 조선 스스로도 대일 외교문서에는 명의 연호는 물론이고 청의 연호도 사용하지 않고, 단지 간지(干支)만을 사용한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증명된다.<sup>24)</sup>

1636년 조선사절에 통신사 호칭이 붙여진 경위에 관해서 『조선왕조실록』에는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다만

通信使 任統, 부사 金世濂, 종사관 黃戽가 일본에서 돌아오니, 상이 불러서 만나 보고 일본의 사정을 물어보았다…….<sup>25)</sup>

라고만 되어있다. 그러나 『통문관지(通文館志)』에는,

대마도주 平義成이 인조에게 서계를 보내와 말하기를, 우리 대군의 受禪之日에 사신이 왔는데, 먼저 대군이 흥거한 때보다 太平을 배가하기 위해 通信使를 청했다.<sup>26)</sup>

24) 孫承詒, “明·清 交替期 對日外交文書の 年號와 干支”,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國學資料院, 1999) 참조.

25) 『仁祖實錄』 권34(인조 15년 3월 무신).

26) 『通文館志』 권9(紀年).

라고 했고,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는,

關白 家光이 교린의 誠을 알기위해 島主로 하여금, 조정에 信使를 청하도록 하여 差倭가 왔는데, 조정에서는 국서가 오지 않은 것에 구애됨이 없이 임광, 김세렴, 황호를 10월에 보내었다.<sup>27)</sup>

라고 하여, 신사 즉 통신사가 교린을 실천하기 위한 사절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후 조선에서 막부에 보낸 사절은 모두 통신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파견목적은 1636년 태평축하와 1643년 장군이 득남(得男)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장군습직의 축하가 정례화되었다. 1636년 통신사의 명칭이 부활된 후, 1811년까지 총 9회에 걸쳐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조선 후기 일본에 파견된 조선사절의 일람표는 [표5-3]과 같다.

## (2) 통신사의 활동<sup>28)</sup>

조선 후기 통신사는 원칙적으로 조선국왕이 일본장군에게 파견한 사절로, 이들은 조선국왕의 국서와 예물을 지참했으며, 모두 ‘통신사’의 명칭을 사용했다(초기 3회는 회답겸쇄환사). 그리고 사절단의 삼사(正使·副使·書狀官)는 중앙의 관리로 임명했으며, 조선 전기와는 달리 회례나 보빙의 의미가 아니라 막부장군의 습직이나 양국 간의 긴급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되었으나 대부분 장군 습직의 축하였다. 그리고 통

27) 『증정교隣志』 권5(信使各年例).

28) 통신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손승철, “제5장 통신사의 부활, 돌아온 평화의 시대”, 『조선통신사, 일본과 통하다』(서울: 경인문화사, 2006)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표 5-3] 조선 후기 조선사절일람표

순번	파견일	명칭과 파견자	목적	출처
1	1604. 8	探賊使 四溟大師	일본 국정탐색	선조 37년 12월 무오
2	1607. 2	回答兼刷還使 呂祐吉	화호, 국정탐색, 피로인쇄환	慶運, 『海槎錄』
3	1617. 7	回答兼刷還使 吳允謙	대판평정축하, 피로인쇄환	李景稷, 『扶桑錄』
4	1624.10	回答使 鄭 昱	장군습직축하, 피로인쇄환	姜弘重, 『東槎錄』
5	1636.10	通信使 任 統	일본 태평축하, 국정탐색	金世濂, 『海槎錄』
6	1643. 4	通信使 尹順之	장군아들 탄생축하, 국정탐색	『癸未東槎日記』
7	1655. 6	通信使 趙 玠	장군습직축하(德川家綱)	南龍翼, 『扶桑錄』
8	1682. 6	通信使 尹趾完	장군습직축하(德川綱吉)	金指南, 『東槎日錄』
9	1711. 7	通信使 趙泰億	장군습직축하(德川家宣)	趙泰億, 『東槎錄』
10	1719. 6	通信使 洪致中	장군습직축하(德川吉宗)	申維翰, 『海遊錄』
11	1748. 2	通信使 洪啓禧	장군습직축하(德川家重)	趙命采, 『奉使日本時間見錄』
12	1763. 8	通信使 趙 暉	장군습직축하(德川家治)	趙暉, 『海槎日記』
13	1811.윤03	通信使 金履喬	장군습직축하(德川家齊)	柳相弼, 『東槎錄』

신사의 편성과 인원은 각 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460명에 이르는 대인원이었다.

통신사의 파견 절차는 먼저 일본에서 새로운 막부장군의 승습이 결정 되면 대마도주는 막부의 명령을 받아 ‘관백승습고경차왜(關白承襲告慶差倭)’를 조선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알려온다. 그리고 곧이어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통신사청래차왜(通信使請來差倭)’를 파견한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예조에서 논의한 뒤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부산의 초량왜관에 알려 대마도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신사가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하면 다시 대마도에서 파견된 ‘신사영빙차왜(信使迎聘差倭)’의 인도를 받아 대마도에 도착한 후, 대마도주의 안내를 받아 장군이 있는 에도까지 왕복한다. 이들이 임무를 마치고 대마도로 돌아오면 그곳



에서 부산까지는 다시 대마도주가 임명하는 ‘신사송재판차왜(信使送裁判差倭)’가 이를 호행하여 무사히 사행을 마치도록 안내하였다.

통신사의 여정을 보면, 일행이 서울을 출발하여 부산까지 대략 2개월 정도가 걸렸다. 통신사 일행은 긴 여행에 앞서 국왕으로부터 환송연을 받았으며, 그것이 끝나면 각기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작별을 하였다. 긴 여정인 데다 바다를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이별이었다. 그래서 중도에서 여러 차례 연회가 베풀어졌다. 처음에는 충주·안동·경주·부산의 4개소에서 베풀어졌으나, 민폐 때문에 후에는 부산 한 곳에서만 베풀었다. 부산에 도착해서는 영가대에서 해신제(海神祭)를 지냈다. 해신제는 기일을 선택하여 통신사 일행이 일본으로 떠나는 바로 그날 거행했다. 영가대에서 해신제를 지낸 통신사는 국서를 받들고, 기선(騎船) 3척과 복선(卜船) 3척에 나누어 타고, 호위하는 대마도 선단의 안내를 받아, 대마도의 사스나(佐須奈)에 도착한 후, 와니우라(鰐浦) - 니시도마리(西泊)를 거쳐 대마도주가 있는 이즈하라(嚴原)의 부중(府中)으로 갔다. 그곳에서 대마도주의 영접을 받은 후, 다시 이데이안(以酏庵)의 장로(長老) 2인의 안내를 받아 이키(一岐) - 아이노시마(相島) - 지시마(地島)와 시모노세키(下關)를 거쳐 세토나이가이(瀬戸内海)로 들어선다. 이어 나가시마(長島) - 가미노세키(上關) - 가마가리(浦刈) - 히비(日比) - 우시마(牛窓) - 무로쓰(室津) - 오사카(大阪)에 이른 뒤 히가시·니시혼간지(東·西本願寺)에 묵었다. 그 뒤 6척의 조선선과 몇 명의 경비요원만을 남겨둔 채, 여러 다이묘(大名)가 제공한 배를 타고 요도우라(淀浦)에 상륙하여 육로로 교토로 향했다. 조선 전기는 여기가 종점이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1617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에도까지 갔다. 오쓰(大津)를 출발하여 1620

년대에 특별히 건설했던 ‘조선인가도(朝鮮人街道)’를 거쳐 히코네(彦根) - 나고야(名古屋) - 오카사키(岡崎) - 도모하시(豊橋) - 아라리세키쇼(新屋關所) - 시즈오카(静岡) - 시미즈(清水) - 미시마(三島) - 하코네세키쇼(箱根關所) - 오다와라(小田原) - 후지자와(藤澤)를 지나면 드디어 목적지인 에도에 도착했다. 통신사가 통과하는 객사에서 한시문과 학술의 필담창화(筆談唱和)는 문화상의 교류를 성대하게 했다.

에도에 체류하는 동안 1636·1643·1655년에 파견된 통신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묘소인 니코(日光 東照宮) 참배를 강요받기도 했다. 또 1636년부터는 막부의 요청에 의하여 곡마단의 공연이 있었는데, 1680년부터 이를 위해 마상재(馬上才)가 파견되었다. 막부로부터 길일이 정해져 국서와 별폭이 전달되고 며칠 뒤 장군의 회답서와 노고를 치하하는 선물을 받은 후 왔던 길을 되돌아 귀로에 오르게 된다. 다이묘들의 접대는 갈 때와 마찬가지로 행해졌고, 대마도로부터는 차왜가 동행하여 부산에 입항한 뒤 한성에 돌아왔다.

통신사 행렬의 장려함은 1636년 통신사를 직접 목격한 네덜란드 상관장 니콜라스의 기록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먼저 무용과 피리·북의 주악이 행해지고, 그 후에 벼를 타작할 때 쓰는 것과 같은 큰 막대기를 가진 몇 사람이 두 명씩 지나가고, 그 양측에서 각각 금과 생사를 섞어 만든 망을 든 세 사람이 경호하고 있었다. 그 후에 약 30명의 젊은이가 말을 타고 뒤따랐다. 그 뒤에는 5~60명이 붉은 우단을 친 가마를 메고 따라갔다. 그 안의 탁자 위에는 칠을 한 상자가 있었고, 거기에는 조선 문자로 쓰인 일본 황제에게 보내는 서한이 들어 있었다. [……] 재차 여러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가 뒤따라 왔다. [……] 가마가 몇 대 지나가고, 검은 비단 옷을 입은 사절의 부관이 가마를 타고 지나갔다. 잠시 후 400명의 기사[……] 약 15분이 지나자 200명의 호위병이 따르고, 일본 귀족 일행이 가고, [……] 마지막으로 조선인의 화물과 선물을 운반하는 약 천 마리의 말 [……] 이들의 행렬이 전부 통과하는 데는 약 5시간이 걸렸다. (『平戸オランダ商館日記』)

당시 규슈의 히라도(平戸)에는 네덜란드 상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상관장이던 니콜라스가 에도에 가던 중 만난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본장군을 황제(Emperor)로 기록했다. 조선통신사를 안내, 호위하거나 짐을 나르기 위해 평균 3천여 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의 거리를 1미터로만 잡더라도 4킬로미터는 족히 될 것이고, 그 행렬이 통과하는 데 5시간이나 걸렸다는 것이다.

통신사의 비용도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다. 부산까지는 조선에서 부담하지만, 부산을 출항하여 다시 부산에 돌아올 때까지 전액을 일본에서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통신사 접대비용이 100만 냥 정도 들었는데, 이는 막부의 1년치 예산이었다고 한다.

통신사의 접대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숙소의 준비였다. 후쿠오카 현립도서관에 소장된 통신사가 묵었던 숙소를 그린 그림을 보면, 삼사의 거실, 목욕탕, 화장실 등을 합친 건물이 24채와 부속 건물로 동서 65칸, 남북 70칸을 새로 지었는데, 동서 115미터, 남북 126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건물을 새로 지었다. 또한 통신사가 통과하는 각 번의 역에서의 향응, 도중의 호위, 도로의 정비, 교량의 개축, 도로변에 나무를 심고, 모래를 깔고,

물을 뿌리는 일까지 상세하게 시달하여, 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토록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통신사를 접대하는 이유는 왜일까. 그것은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다.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막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미 집권의 정당성을 국제관계를 통해 과시하려 했다. 또한 조선 침략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도 불식시켜 우호교린을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막부는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주변 제국이 막부의 '무위'에 복속하는 형태로 국제관계를 위장했고, 국민들에게는 조선통신사를 '복속사절'로 인식시켰다.

한편 조선의 경우도 북방의 청(후금)에 대비하기 위해, 남쪽 일본과의 우호교린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임란 후 서둘러 일본과 교린체제를 회복해 갔던 것이고, 통신사를 파견해 일본의 수도인 에도까지 왕래함으로써 일본 국정을 탐색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통신사는 비록 정치·외교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지만, 문화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일본은 불교와 사무라이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문화(異文化)였던 유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현재 통신사들이 남긴 기행문이 100여 종 정도 전해 오는데, 이 기행문들을 통해 당시의 정황을 소상히 살필 수가 있다.

유교문화에 대한 관심은 곧 조선유학의 집대성자인 '퇴계(退溪)'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

한 예로 1719년 통신사 기행문에는,

오사카에 책이 많은 것은 실로 천하의 장관이다. 우리나라 선현들의 문집

중에 왜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退溪集』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집에서는 이것을 읽고, 서당에서는 이것을 강론한다. 여러 문인들이 필담을 할 때도, 그 질문에는 반드시 『退溪集』의 말을 즐겨 인용하며 이것을 으뜸으로 여겼다. (신유한, 『해유록(海遊錄)』)

라고 하여, 퇴계집에 심취해 있는 일본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조선문화를 중국문화와 동등하다고 보았고, 심지어는 조선인들을 중국을 의미하는 당인(唐人)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면 당대 최고지식인이었던 기노시타 순안(木下順庵)과 그의 제자로 조선 외교에 성신(誠信)을 강조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州)는,

막부에서는 조선사신을 객인이라고 부르고, 혹은 조선인이라 부른다. 그러나 일본 민속에서는 옛날부터 당신네 나라의 문물을 중국과 동등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당신네를唐人이라 부르기도 하며, 조선문물을 사모한다. (신유한, 『해유록』)

고 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조선에서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을 통신사의 삼사로 선발했다.

초사흘 임인, 식사 후, 유학자 10여 명이 대청에 모였다. 나는 세 서기와 함께 나가 서로 인사하고 앉았다. 좌중의 사람들 중에는 각각 장단율(長短律) 및 절구를 베껴와서 나에게 주며 창화(唱和)를 요청했다. 즉시 모든 요청에 응하여 화답했다. 그가 부르면 나는 곧 화답하고, 혹 바꾸어서 장편이 되기

도 했으며, 책상 위에는 시문 화답한 종이가 수북이 쌓였다. 김세만이 옆에 앉아서 쉴 겨를이 없이 부지런히 먹을 갈았다.

하루 중 만나는 사람은 대체로 3, 4편을 얻었지만 혼자서 상대했고, 왼쪽에 응하고, 오른쪽에 답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독창성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거나 윤색할 여유도 없었다. 다음날에도 십수명과 만나서 전날과 같이 창수했으며 한밤중이 되어서야 그쳤다. (신유한, 『해유록』)

이상의 내용은 통신사가 통과하는 객사에서의 한시문과 학술의 필담 창화에 관한 내용이다.

한편 일반 서민들은 어떠했을까. 통신사의 기행문과 마찬가지로 현재 일본에는 통신사에 관한 많은 회화 자료가 남겨져 있다. 예를 들면 풍속도 화가로서 유명한 하네가와 도에이(羽川藤永)의 「조선인래조도」가 고베의 시립박물관에 있다.

이 그림은 도쿄의 니혼교(日本橋)를 지나고 있는 통신사 일행을 그리고 있다. 화면 중앙에서부터 좌측 뒤쪽에 후지산과 에도성의 성곽이 보인다. 두부모를 잘라서 짜 맞춘 듯이 이층집 지붕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그 사이를 통신사 일행이 지나간다. 2층은 문을 닫아서 격자(格子)만이 눈에 띄지만, 1층에는 상가의 휘장 밑으로 에도의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다. 양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 술이나 차를 마시는 사람,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는 아낙네의 모습도 보이지만, 사람들은 통신사 행렬에 넋을 잃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길 중앙에 무사한 사람과 개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경비를 맡은 무사인지 봉을 들고 서 있는 사람과 개, 방수용

물통이 눈에 띄고, 통신사를 맞이하는 에도시민들의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2~30년 만에 한 번 오는 통신사의 장관을 놓치지 않으려는 서민들의 모습이다. 마치 88올림픽 때나 월드컵경기 때 서울시민의 열광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겨울연가”를 보는 현대 일본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신사는 또 하나의 한류(韓流), 즉 ‘조선시대의 한류’로 표현하기도 한다.

동시대 일본인들은 조선통신사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한 가지는 통신사를 통해 만나는 유교문화에의 관심으로 조선통신사와의 필담창화는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문학적 소양이 높은 제술관을 반드시 임명했다.

한 예로 1711년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금년(1682) 가을, 조선의 병사가 왔다. 평생 동안 지은 시 백수를 적어서 삼학사에게 평을 청하고 그들에게 서문을 부탁하려고 아비류를 통해 9월 1일 객관에 찾아갔다. 제술관 성완, 서기관 이담령과 더불어 비장 홍세태라는 사람을 만나 시를 짓는 등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에 성완이 내 시집의 서를 써주었다.

하쿠세키의 문집에 제술관이던 성완이 서문을 써 준 것을 크게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통신사를 ‘조공사절’과 같이 보는 문인도 적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1811년 대마도에서의 역지통신에 직접 영향을 준 나카이 지쿠잔(中井竹山)이 지은 『초모위언(草茅危言)』이라는 책이 있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神功의 원정 이래 三韓이 우리에게 복속되어 조공을 바친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일인데, 지금의 사정은 그와 다르다”고 하면서,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삼한 정벌 이래 속국이 된 조선과 대등하게 교류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당시 로주(老中)였던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에 의해 그대로 수용되었다. 그는 나카이 지쿠잔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을 아직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니, 원래 이 병사가 이 나라에 오는 것은 전혀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볼 수 없다. 혹은 일본의 썩은 유학자들이 모두 나와서 계림 사람들과 창화하니 본의에도 어긋나고, 또한 길을 가면서 성쇠가 보여도 이로우 것은 없다. 언제나 성대하고 언제나 궁핍하지 않은 것은 고맙지만, 때로는 기아가 계속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병사는 아름다운 풍경이 될 수 없다. 하물며 순시 청도라는 깃발을 세우고 상상관이란 지는 통역이나 하는 천한 사람이고, 귀한 몸이 아닌 三使 등을 三家 분들과 함께 모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지금 그 예를 없앨 수 없다면, 힘을 들여서라도 또다시 正德新禮와 같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 병례는 쓰시마에서 영접하면 끝날 일이다.

이러한 조선멸시관은 19세기에 이르러 밀려오는 외압에 의해 신국사상(神國思想)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대조선외교를 ‘막부장군’과 ‘조선국



왕'의 대등한 관계에서 일본의 '황제'와 조선 '국왕'의 상하관계로 전환시켜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는 소위 정한론을 대두시켰다.

입관 이후 다시 부활된 통신사는 1811년 대마도에서 행해진 역지통신(易地通信)을 마지막으로 단절된다. 그리고는 그 후에 4번이나 연기를 거듭하다가 1868년 메이지유신을 알리는 일본 측의 서계가 문제가 되어 260여 년간의 교린관계는 붕괴된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 직후, 천황의 집권 사실과 메이지 외무성이 한일관계를 전담한다는 서계를 보내왔다. 그런데 서계의 양식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일본천황이 한 단계 위에서 천황대 조선국왕의 외교를 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관례상 이것은 당연히 거부할 일이었다. 조선에서는 장군이 집권하던 천황이 집권하던 그것은 일본 국내의 사정이므로, 조선은 단지 일본의 최고집권자와 대등한 관계를 맺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결국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1872년 부산왜관을 점령했고, 이후 불행한 한일관계가 다시 반복되었다.

#### 4. 맺음말: 공존·공유·공생을 위하여

통신사(通信使)란 한지음 그대로 통할 통(通), 믿을 신(信), 사절 사(使)로, 믿음을 통하는 사절 또는 믿음을 통하기 위한 사절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사를 통하여 고려 말부터 갈등의 핵심인 왜구와 통교 문제를 해결했고, 교린체제를 구축하면서 공존(共存)의 시대를 열어 갔다. 물론 중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의해 불행한 역사의 상흔도 남겼다. 그러나 조·일 간에는 다시 통신사를 부활시켜,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신사는 조·일 양국이 함께 연출한 성숙한 국제인식

의 표현이었다.

한일양국에서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20세기의 불행을 극복하고, 21세기를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했다. 그러나 그해 연초부터 독도와 교과서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어,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과거사에 관한 언급은 금기사항처럼 모두 회피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상황이다. 김해 - 하네다 간에는 직항로가 개설되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울 - 도쿄 간을 오가고, 2008년만 해도 1년에 520만 명, 하루에 1만 5000명씩이나 오가는 시대에 역사를 거꾸로 가는 것이다. 그 많은 한일관계의 역사적 경험을 무의미하게 던져 버리는 바보 같은 것이다. 모두 역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상황이다.

2010년은 한일합방 100년이 되는 해이다. 가해와 피해의 식민지 36년을 경험하고, 해방 반세기를 훌쩍 지나, 21세기가 되었어도 한일양국은 과거의 불행한 시대를 청산하지 못하고, 또다시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일 간의 진정한 의미의 우호교린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지난 500년간 '조선통신사'가 연출한 한일관계를 들여쳐보자.

'공존의 역사'를 만들어 낸 통신사의 역사적 경험을 '현재에 공유'해 갈 때, '미래에 공생'하는 역사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논문 접수일 2009.12.29.

심사 완료일 2010.01.26.

# A Study on the Historic Meaning of Chosun Tongsinsa

## \_An essay for Coexistence, Co-ownership, and Co-prosperity

Son, Seung-Cheul

Department of Histo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ic meaning and symbolism of Chosun Tongsinsa. Chosun Tongsinsa were the Korean diplomats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ransforming the Japanese pirates raiders - waegu ; plunders of the East Asian waters- into peace envoys leading to the period of good-neighbor for 200 years in the early Chosun period. And they contributed to end the Imjin War which led the late Chosun period of 260 years to the era of peace.

Founded in 1392, Chosun made a good-neighbor contract with Japan based upon the premise to follow the hierarchial order with Myung dynasty in its center. Upon this, Chosun and Japan opened an era of coexistence by international exchanges of Chosun Tongsinsa and by improving various systems.

The term "Tongsinsa" means an ambassador who communicates with each other in trust and practices this trust.

Although there were period of betrayal of the good-neighbor relation due to Imjin War by Poongsin regime, the relationship restored through Tongsinsa. And the countries prepares a place for cultural exchange through coming and going of Thongsinsa. For example, many writers, artists and doctors visited Japan to discuss learning, to exchange the poets, to transfer artistic style of Chosun and to hand down medical knowledge. In this sense, Tongsinsa used to be called "Hanryu(Korean Wave) of the Chosun dynasty"

Today, the uncomfortable relation between the countries continues due to Dokdo and History textbook matters. 2010 is the centennial of the Japanese occupation. But the two countries still have repeated the conflicts without resolving the tragic past problem. At this point, the relationship that 'Chosun Tongsinsa' made for 500 years has its own historic meaning. If the experience of historic coexistence that Chosun Tongsinsa developed can be owned together today, one may hear the message of co-prosperity in the future.

- Keywords

Chosun Tongsinsa, waegu, Sampo, Imjin War, cultural exchange, coexistence, co-ownership, co-prosperity, Hanryu